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동향 및 시사점

I. 추진 배경 및 현황 .....	1
II. 주요 내용 .....	3
III. 재원조달 방안 .....	8
IV. 시사점 .....	11

확인 : 팀            장 김영석 (6255-5707)  
                             claudio@koreaexim.go.kr  
작성 : 책임조사역 임영석 (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 사 역 박두정 (6255-5709)  
                             pdj@koreaexim.go.kr

## I. 추진 배경 및 현황

### (1) 배경

□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중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21세기 실크로드 구축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프로젝트 추진

-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를 구축하여 '팍스 차이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국의 세계 경영 전략임.
  - 일대일로 구상은 중국 '5세대 지도부'가 집권 직후 세계무대에서의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중국의 꿈(中國夢)'의 구체적인 실현전략으로 부상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철도, 항만, 도로, 해운 등 인프라 투자에 따른 막대한 국익이 창출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지역 불균형 해소, 소수민족의 통합 유도 등의 효과도 기대됨.
  - 철도와 전력, 도로망 건설을 통해 철강, 시멘트 등 과잉생산 산업에 새로운 판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었던 내륙 중서부 및 국경지역 개발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산시성(陝西省)에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로 이어지는 서북 5개 성(省)을 발전 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소수민족 통합을 가속화시킴.
- 대외적으로는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자원과 에너지 확보, 중국의 경제 영토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견제 및 경제통합의 주도권 확보를 기대하고 있음.

### (2) 추진 경과

□ 2013년 일대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후 지도부가 지속적 관심 표명

-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국가 순방 기간중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건설'을 처음 언급한 이후 꾸준히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 2014년 3월 리커창 총리가 전인대 정부공작보고에서 일대일로를 중점 추진 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4년 12월 중국경제공작회의에서 일대일로를 2015년 중점 추진계획으로 발표함.

- 또한, 중국 외교부 왕이(王毅) 장관은 제12기 3차 양회(兩會) 기자간담회에서 2015년 중국 외교의 키워드는 '하나의 중점 두 개의 주선(一個重點, 兩個主線, 하나의 중점은 일대일로 정책을, 두 개의 주선은 평화와 발전을 의미)'이라고 밝힘.

- 정부는 2015년 3월 일대일로 세부계획을 공개하고<sup>1)</sup> 중국 33개 성(省)급 행정단위 중 18개를 추진 대상으로 선정함.

## □ 인프라 관련 법·제도 개선, 활발한 대외 외교 추진, 일대일로 총괄기구 설립 등을 통해 추진체계 구축

- (제도정비) 대내적으로는 인프라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선하여 인프라 사업 투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혼합소유제<sup>2)</sup> 관련 회사법 정비 및 '기초인프라와 공공사업특허경영관리방법(基礎設施和公用事業特許經營管理辦法, 국무원)', 'PPP 자문서비스기관 모집에 관한 규정(關於征集政府和社會資本合作(PPP)專業諮詢服務机构的公告, 재정부)' 등 부처별 PPP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을 도입함.

- (외교강화) 2015년 4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파키스탄과 460억 달러 규모의 '경제 회랑<sup>3)</sup>'을 공동 구축하기로 합의하는 등 일대일로 외교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상하이협력기구(SCO)<sup>4)</sup>, 중국-중동유럽국가지도자회의, 메콩강지역 경제협력지도자회의 등을 통해 일대일로 외교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총괄기구) 2015년 2월 일대일로 프로젝트 건설 총괄기구인 '일대일로 건설공작영도소조(一帶一路建設工作領導小組)'가 출범함.

- 당서열 7위인 장가오리(張高麗) 상무 부총리가 단장으로써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부조장에는 왕후닝(王護寧, 중앙정치국위원, 중앙정책연구실주임, 중앙개혁반주임), 왕양(汪洋, 중앙정치국위원, 국무원부총리), 양징(楊晶, 중앙서기처서기, 국무위원, 국무원비서실장), 양지에츠(楊潔篪, 前외교부장, 국무위원) 등 총 4명이 임명됨.

1) 상세내용은 II장 주요내용 참조

2) 혼합소유제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재산권을 집단 자본이나 비공유 자본 등에 나눠주는 일종의 민영화 개혁임.

3)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까지 3,000km 구간에 철도와 도로, 가스관을 건설하는 대역사업. 회랑의 출발점인 과다르항은 중국이 개발해 40년간 운영권을 확보한 항구로 일대일로의 거점이고, 미국 해군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중동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교두보임.

4)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이 2001년 6월 상하이에서 만든 협력기구로 회원국 상호간 신뢰와 우호 증진, 각 분야의 협력 관계 구축, 역내 평화·안보·안정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함.

## II. 주요 내용

### (1) 계획과 비전

#### □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일대일로 청사진을 발표

- 2015년 4월 중국정부는 일대일로 공식 청사진을 발표하고 실크로드 경제 벨트(육상 3개 노선), 21세기 해상실크로드(해상 2개 노선) 등 총 5개의 노선을 발표함.
  - 일대(一帶)를 뜻하는 육상 실크로드경제벨트는 ① 중국 → 중앙아시아 → 러시아 → 유럽 노선 ② 중국 → 중앙아시아 → 서아시아 → 페르시아만 → 지중해 노선 ③ 중국 → 동남아시아 → 남아시아 → 인도양 노선 등 3개 방향으로 추진
  - 일로(一路)를 의미하는 21세기해상 실크로드는 ① 중국 연해항구 → 남중국해 → 인도양 → 유럽 노선 ② 중국 연해항구 → 남중국해 → 남태평양 노선 등으로 추진
- 일대일로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역의 60여개 국가를 아우르며 44억 명 (세계 인구의 63%)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가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일대일로 개발 지역의 경제규모(GDP)는 약 21조 달러로 전 세계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의 23.9%를 차지함.

<그림 1> 일대일로 청사진



자료: 한국일보(중국중앙방송(CCTV) 재인용), 2015.4.

□ 신장(新疆)과 푸젠(福建)을 각각 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구로 변모시킨다는 계획

- 신장의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서부(중앙아시아 및 남·서 아시아) 육상 실크로드의 허브이자 교통과 물류 및 문화, 과학, 교육 등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임.
  - 시안에서 출발해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을 잇는 장안호를 비롯, 충칭-러시아-폴란드-독일을 잇는 위신어우 열차, 장쑤성 련윈강-간쑤성 란저우-신장 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를 잇는 중국횡단 철도 등 중국의 주요 물류 운송열차 대부분이 시안을 통과함.
- 푸젠은 창장삼각주(長三角), 주장삼각주(珠三角), 양안(중국과 타이완), 환보하이(環渤海) 등을 보유하여 대외 개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강한 경제력도 갖추고 있어 해상 실크로드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임.

<표 1> 일대일로 사업 대상 지역 및 역할

지역	역할	
서북	신장(新疆)·산시(陝西)·간수(甘肅)·닝샤(寧夏)·칭하이(青海)·네이멍구(內蒙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국가로 뻗어 나가는 통로
동북	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	러시아, 몽골 등 극동지역과 육·해상 창구
서남	광시(廣西)·윈난(雲南)·시짱(西藏·티베트)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유기적으로 연결
연해지역	푸젠(福建), 상하이(上海), 광둥(廣東), 저장(浙江), 하이난(海南)	해상 실크로드 건설 중추
내륙지역	충칭(重慶)	동부와 중부, 서부를 이어주는 운송 통로

자료: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에 대한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愿景与行動, LG경제연구원.

□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발전 도모, 지역간 네트워크 및 상호 교류 확대, 아시아 발전과 안보 기여 등 장기비전 제시

- 2015년 3월 국가발전위원회 등 3개 부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에 대한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愿景与行動)'을 통해 세부 계획을 발표함.

- 각 정부 정책의 적극적 연계, 교통 인프라와 송유관, 가스관 및 전력 등 에너지 인프라 협력, 자유무역구 건설 등을 통한 무역자유화 추진, 금융협력 강화, 민간교류 활성화 등 5대 중점 추진 원칙을 제시함.

**<표 2> 일대일로 5대 중점 추진원칙 및 전략**

추진원칙 및 전략 방안	세부내용
정책 연계(政策溝通)	양국의 상호이익 보장을 위하여 일대일로 사업의 해당 국가 사회경제발전계획 부합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국가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면서 이견을 조정
인프라 연결(設施聯通)	주요 거점별 교통인프라 구축, 자원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적 및 정보교류 강화 등 추진
무역 확대(貿易暢通)	투자 및 무역장벽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자유무역구 건설, 무역분야 확대, 통관 간소화 추진
자금 조달(資金融通)	AIIB와 실크로드기금, 브릭스 개발은행, 상하이협력기구(SCO)개발은행 설립 등을 추진하고 중국-아세안 은행연합, 상하이협력기구은행연합의 협력 장려
민간교류(民間相通)	인적교류 확대, 관광분야 협력, 방역방제분야 정보 및 기술 공유, 산업분야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며, 교육의료 및 빈곤구제 부문 개선을 통한 민간단체 교류 진흥 추진

자료: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건설 추진에 대한 비전과 행동(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 일대일로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동북아 협력대화(ACD),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일대일로 국제고위층포럼 설립을 제안함.

## (2) 일대일로(一帶一路) 주요 추진사업

### □ (一帶)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통해 수송기간 감축 및 국가간 연계 강화 등을 추진

- 2013년 7월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에서 출발하여 독일 함부르크에 이르는 1만 214km 길이의 국제화물열차 운행 시작

- 이 열차는 신장 자치구의 아라산커우(阿拉山口) 내륙 항구를 떠나 카자흐스탄-러시아-벨라루스-폴란드 등을 거쳐 독일에 도착하는 데 16~18일이 소요되며, 운송 비용도 항공 운송의 20% 수준에 불과하고 해상운송보다 약 20일 정도 소요시간이 단축됨.

5) ① 시대배경, ② 공동구축 원칙, ③ 프레임 구상, ④ 중점협력분야, ⑤ 협력메커니즘, ⑥ 중국 각 지방의 개방형세, ⑦ 중국의 적극적 행동, ⑧ 아름다운 미래 공동개척 등 8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대일로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경로이자 협력하여 수익을 공동 창출하며 문명을 상호 학습하는 경로라는 점을 강조함.

- 정저우-유럽 국제화물철도는 통관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검역 과정이 간소하고, 특수 화물을 제외하고는 국경을 지나는 아라산커우(阿拉山口)에서 재검역 없이 바로 국경을 통과할 수 있게 되었음.
- 2013년 11월 광둥(廣東)성 둥관(東莞)에서 러시아 모스크바에 이르는 총연장 2만km의 국제화물열차가 개통됨에 따라 주장삼각주(珠三角) 지역에서 중앙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연결하는 운송로가 확보됨.
  - 둥관(東莞)에서 러시아까지 운송기간이 해상운송으로는 40일 가량 소요되었으나, 이번 열차 개통에 따라 15일로 대폭 단축되었음.
- 2013년 11월 개통된 창안(長安)호는 시안-로테르담(9,850km), 시안-모스크바(7,251km), 시안-카자흐스탄(알마티 3,866km/Zhem 5,027km) 등 세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국-중앙아시아-유럽-러시아를 연결함.
- 2015년 4월 중국 북서쪽 신장자치구 카스와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잇는 3,000km 구간에 철도, 도로, 에너지 수송관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유라시아 고속철도과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음.

<그림 2> 주요 국제화물열차 노선도



자료: 저자 작성.

6)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를 거쳐 독일로 이어지는 철도로 중국은 2025년까지 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횡단 고속철도망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一路)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위해 파키스탄, 그리스, 스리랑카 등과 항만 개발 프로젝트 추진

- 2015년 4월,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하면서 **캄보디아 시아누크항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참여의사를 피력**하였으며, 2013년 2월 중국이 87억 달러를 투자하여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항구를 건설**하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음.
  - 또한, 중국은 인도양 진주목걸이(String of Pearls)전략<sup>7)</sup>에 따라 미얀마 시트웨 항구도 개발하기 위해 미얀마 정부와 협의 중임.
- 2015년 2월 **스리랑카 정부는 14억 달러의 콜롬보 항구도시 공동건설 프로젝트를 최종 승인**하였으며, 이 중에서 3분의 1은 중국 측이 소유권을 가지게 됨.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스리랑카를 중국의 신(新)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해상 실크로드) 건설에서 중요한 동반자로 여길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 양국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4월 시진핑 주석 방문 일정에 맞춰 **파키스탄 과다르항이 개항**됨에 따라 수송 기간이 대폭 단축되었음.
  - 페르시아산 원유를 과다르항을 거쳐 중국 서부 신장자치구로 수입할 경우 기존 말라카해협 수송로보다 운송 거리를 약 9,000km 거리를 단축할 수 있으며, 중동산 석유 및 말라카해협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도 줄일 수 있음.
  - 과다르항을 해군 기지화할 경우 인도에 대한 견제 강화,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반경 확대 등의 효과도 예상됨.
- 2013년 11월 **아덴 항 및 모카 항의 컨테이너 부두 확장**을 위해 예멘과 5억 달러의 차관 제공에 합의하여 **해상 요충지인 예멘의 모카항과 유럽과 아프리카-중동을 잇는 아덴항의 운영권을 확보**함.
  - 또한, 2013년 3월에는 아프리카 순방에서 **탄자니아와 바가모요 항구 개발을 위한 협정도 체결**하였음.

7) 중국이 중동에서 남중국해까지 해로를 따라 투자 개발하는 거점 항구들을 이으면 진주 목걸이와 비슷한 모양이란 데서 나온 용어로 파키스탄의 과다르, 방글라데시의 치타공, 미얀마의 시트웨 항구 등이 꼽힘.



- 리커창 총리는 그리스를 방문해 46억 달러 규모의 무역 및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피레우스항을 유럽 수출 거점기지로 활용할 계획임.
- 피레우스항은 일정한 조수간만차, 유럽-중동-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전 지역을 연결하는 천혜의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이미 2009년 중국 최대 해운사 코스코(COSCO)를 통해 피레우스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한 상태임.

<그림 3> 중국의 글로벌 해양 거점 항구



자료: 문화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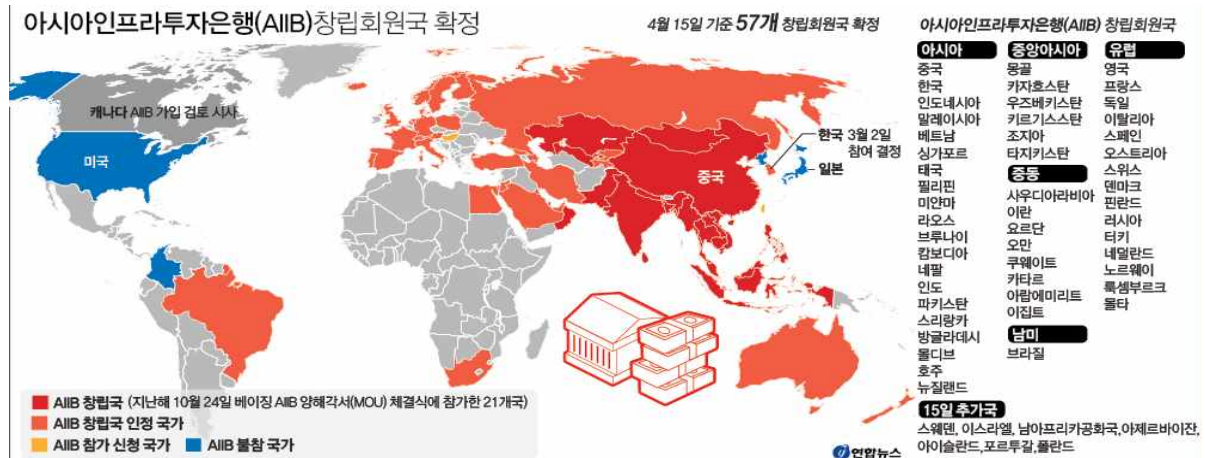
### Ⅲ. 재원조달 방안

#### □ 일대일로 사업 자금조달 추진을 위해 AIIB 및 실크로드기금 설립

-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일대일로 관련 역내 국가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조달하여, 시진핑 정부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아시아 역내 경제개발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임.
- 대외적으로는 아시아 역내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互聯互通(Connectivity)”를 강화함으로써 역내 경제성장 및 주민복지 실현을 표방함.
- AIIB 법정자본금 1,000억 달러 중 중국이 약 30%인 298억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였으며, 출자비율은 아시아 국가 75%, 기타 지역국가 25% 범위 내에서 참여국의 GDP 규모에 따라 배분할 예정임.
- ADB(자본금 약 1,650억 달러) 자금의 인프라 건설 투입규모는 제한적이거나<sup>8)</sup> AIIB 자금은 주로 인프라 건설 지원에 집중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역내 인프라 사업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8)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0~2020년까지 아시아 지역에 약 8조 달러 수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ADB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는 연간 1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한 상황임.

## <그림 4> 창립회원국 현황



자료: 연합뉴스.

- AIIB 건립과 더불어 중국은 400억 달러의 실크로드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 2월 100억 달러의 자본금을 확보한 실크로드 기금 유한책임공사가 공식 활동을 시작함.
  - 외환보유고에서 65억 달러, 중국투자유한공사와 중국수출입은행이 각각 15억 달러, 중국개발은행이 5억 달러를 출자하여 총 100억 달러의 자본금을 마련하였음.
  - 동 기금은 투자 및 융자 형태로 일대일로 주변 국가들의 기초시설 건설, 자원 개발, 산업 및 금융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실크로드기금 유한책임공사는 도로, 철도 등 주변 국가들의 인프라사업에 15년 이상 장기 투자할 계획임.
  - 이사장은 진치(金琦·60·사진) 인민은행장 조리, 사장(총경리)은 왕옌즈(王燕之) 전 국가외환관리국 위탁차관 판공실 주임이 맡았으며
- AIIB와 실크로드 기금 설립은 외환보유액의 효율적 이용, 위안화 국제화 진전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4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AIIB를 통해 역내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출 형태로 제공하면서 보다 합리적·효율적인 외환보유액 활용 수단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일대일로 추진 과정에서 형성된 금융네트워크가 위안화 유동성 공급 통로로 활용되면서 위안화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BRICS 개발은행(NDB),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 중국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도 일대일로 사업 자금조달에 활용될 전망

- BRICS 개발은행(NDB)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이 BRICS 국가 및 신흥국들의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금융기구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서 일대일로 사업에도 자금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됨.
  - NDB의 납입자본금은 초기 500억 달러에서 향후 1,00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며 중국이 가장 많은 410억 달러,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각각 180억 달러, 남아프리카공화국이 50억 달러를 분담할 예정임.
  - 중국 상하이에 본부를 두고 2015년까지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이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국제 인프라망 구축 및 대외 무역 협력을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상하이협력기구(SCO) 개발은행도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됨.
  - SCO 회원국의 인프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란, 몽골,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 준회원국의 프로젝트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
- 또한, 중국 국무원은 업무범위 명확화를 골자로 하는 3대 국책은행(중국 개발은행·중국수출입은행·중국농업은행) 개혁<sup>9)</sup>을 승인하면서 정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함.
  - 정부는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중국개발은행은 '개발성 금융기구\*', 중국 수출입은행은 무역 및 해외투자를 주로 취급하는 '정책성 은행\*\*'으로 지정되어 두 금융기관이 일대일로 자금 지원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됨.
    - \* 자금 등을 시장에서 조달하여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성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국가전략을 지원함.
    - \*\* 국가 재정을 이용하여 직접 정책성 금융을 취급하며 중국 수출입은행(무역 및 해외투자 담당) 및 농업개발은행(농업 담당) 등이 있음.

9) 2015년 4월 국무원이 발표한 이번 개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대일로에 대한 정책적 자금 공급을 위한 것으로 평가함.

## IV. 시사점

### □ 우리기업의 일대일로 사업 수주를 위해 중국기업과의 협업 강화 필요

-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인프라 사업 참여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국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우리 기업의 단독 수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따라서, 국내 해외건설 및 엔지니어링 기업이 보유한 세계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활용하여 중국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공동 수주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으로 판단됨.
  - Engineering News Record(EN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현대건설은 전력 부문에서 세계 2위, 삼성엔지니어링은 하수처리건설 부문에서 세계 3위 및 정유 부문 세계 6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

###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가 예상되는 중국과의 금융협력 강화 필요

- 중국 주도로 AIIB, NDB 등 대형 국제 금융기관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
  - 특히, 중국 정부가 위안화가 포함된 통화 바스켓을 AIIB의 결제 통화를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일대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외 위안화 공급이 확대되면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 다만, 중국은 위안화가 포함된 통화 바스켓제 추진에 대한 AIIB 창립 회원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선 달러를 결제 통화로 사용하고 점진적으로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인력 파견, 정례회의 개최 등으로 AIIB, 실크로드기금 NDB, SCO 개발은행 관련 국영은행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주 기회 발굴, 협조용자 실시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연계 강화 추진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10)'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연계하면 사업 추진의 모멘텀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동북 3성((헤이룽장(黑龍江)·랴오닝(遼寧)·지린(吉林))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서도 러시아, 몽골 등과의 연결을 담당하고 있어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협력시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15년 4월 중국 외교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해 일대일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한중 공동 연구를 활용하여 시범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정부간 협의체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5년 2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쉬사오스(徐紹史)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은 제13차 한·중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양국간 경제 현안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등 3개 협력 과제를 선정한 후 공동연구가 진행 중임.

문의 : 해외경제연구소 지역연구1팀  
책임조사역 임영석 (02-6255-5704)  
yslim@koreaexim.go.kr  
조사역 박두정 (02-6255-5709)  
pdj@koreaexim.go.kr

10)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임.

## < 참 고 문 헌 >

한국무역협회, 일대일로 프로젝트 현황과 영향, 201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일대일로와 AIIB 간 상호작용, 2015.4

\_\_\_\_\_, 일대일로 건설의 2대 핵심지역 지정, 2015.4

에너지경제연구원, 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계획 및 시사점, 2015.5

보험연구원,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 동향과 시사점, 2015.4

國家發展改革委、外交部、商務部,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  
願景與行動」, 2015.3

央廣網, 「一帶一路”新觀察：一帶一路”錢從哪來」, 2015.4

\_\_\_\_\_, 「一帶一路基礎設施建設將拉動投資4千億」, 2015.4

中國青年報, 「構建亞洲命運共同體：從“一帶一路”與亞投行談起」, 2015.4

第一財經日報, 「一帶一路與亞投行齊飛」, 2015.4

WSJ, China Moves to Strengthen Control Over Its Policy Banks, 2015.4

China·US Focus, “One Belt and One Road”, Far-reaching Initiative, 2015.3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http://www.ndrc.gov.cn>)

코트라 해외지지니스정보포털(<http://globalwindow.org>)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

문화일보(<http://www.munhwa.com>)

LG경제연구원(<http://www.lgeri.com>)